

2018년 11월 13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애플 및 반도체 업종이 하락 주도

애플 -5.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44%

### 기술주 급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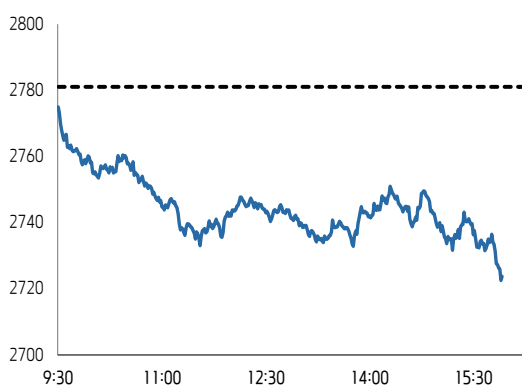
미 증시는 금요일(9 일)에 이어 애플(-5.04%)과 관련주들이 하락 주도. 지난 금요일 애플 부품 업체인 스카이웍(-4.98%)이 매출전망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오늘은 루멘텀(-32.98%)이 전망 하향 조정. 또한 씨티가 이를 이유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발표하고, JP 모건이 애플 목표주가 하향 조정도 영향. 한편, 이탈리아 예산안과 브렉시트 이슈 또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다우 -2.32%, 나스닥 -2.78%, S&P500 -1.97%, 러셀 2000 -1.98%)

지난 금요일(9 일) 애플 부품 업체인 스카이웍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8% 넘게 하락. 시장에서는 애플의 판매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당시 애플 또한 2% 하락했으며, 애플 관련주 대부분 4% 내외 부진. 이런 가운데 오늘은 FaceID 및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 구성 부품 업체인 루멘텀도 가이드언스 하향 조정을 발표한 이후 30% 넘게 급락. 특히 애플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FaceID 관련 고객 중 하나가 “출하량을 크게 줄여 달라” 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 더불어 JP 모건이 애플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270 달러→266 달러)한 점도 애플과 부품주 하락 요인.

한편, 씨티그룹이 아이폰 판매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 이로 인해 2019년 반도체 산업 성장이 부진 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N 비디아(-7.84%)에 대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300 달러→270 달러)하는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4% 하락

이와 함께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EU 집행위와 이탈리아 정부와의 마찰.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투자심리 위축. 13 일 이탈리아 수정 예산안 제출일, 17 일 EU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 이 여파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0.9%대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유지한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080.44	-0.27	홍콩항셍	25,633.18	+0.12
KOSDAQ	670.82	-2.40	영국	7,053.08	-0.74
DOW	25,387.18	-2.32	독일	11,325.44	-1.77
NASDAQ	7,200.87	-2.78	프랑스	5,059.09	-0.93
S&P 500	2,726.45	-1.96	스페인	9,076.30	-0.64
상하이종합	2,630.52	+1.22	그리스	635.20	-1.28
일본	22,269.88	+0.09	이탈리아	19,055.92	-1.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기술주 부진

애플(-5.04%)은 JP모건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씨티그룹은 스카이웍(-4.98%) 목표주가 하향 조정했다. 루멘텀(-32.98%)도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FaceID 관련 출하량을 큰 폭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하자 급락 했다. 이는 아이폰 판매량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애플 및 큐로브(-6.38%), 브로드컴(-6.43%), 사이런스로직(-13.86%) 등 부품 업체들의 하락 요인이었다.

한편, 씨티 그룹은 아이폰 판매 둔화 여파로 반도체 업종의 부진 가능성을 제기 했다. 특히 N비디아(-7.84%)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 했다. 마이크론(-4.27%), 인텔(-3.03%), AMAT(-4.84%), 램리서치(-3.34%)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아마존(-4.41%), 넷플릭스(-3.10%)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면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이 여파로 페이스북(-2.35%), 알파벳(-2.57%) 등 대부분의 기술주가 동반 하락 했다. 골드만삭스(-7.46%)는 1MDB(말레이시아 펀드) 스캔들 이슈로 급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43%	대형 가치주 ETF	-1.34%
에너지섹터 ETF	-3.78%	중형 가치주 ETF	-1.39%
소매업체 ETF	-0.90%	소형 가치주 ETF	-1.36%
금융섹터 ETF	-1.99%	배당주 ETF	-0.06%
기술섹터 ETF	-3.52%	변동성 ETF	+8.14%
소셜 미디어업체 ETF	-3.18%	대형 성장주 ETF	-2.61%
인터넷업체 ETF	-3.19%	중형 성장주 ETF	-2.27%
리츠업체 ETF	+0.21%	소형 성장주 ETF	-2.58%
주택건설업체 ETF	-1.27%	신흥국 고배당 ETF	-1.13%
바이오섹터 ETF	-3.04%	신흥국 저변동성 ETF	-1.22%
헬스케어 ETF	-1.36%	하이일드 ETF	-0.63%
곡물 ETF	0.00%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4.38%	Long/short ETF	+1.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4.86	-2.14%	-2.79%	-7.69%
소재	338.74	-1.49%	-0.04%	+0.86%
산업재	596.09	-1.99%	-0.50%	-4.29%
경기소비재	850.89	-2.31%	-0.19%	-1.23%
필수소비재	580.43	-0.65%	+0.99%	+7.00%
헬스케어	1,059.87	-1.39%	+1.72%	+1.33%
금융	440.36	-1.99%	-0.83%	+0.79%
IT	1,180.61	-3.54%	-2.01%	-3.45%
커뮤니케이션	147.36	-1.48%	-1.36%	-2.71%
유틸리티	277.81	-0.03%	+1.65%	+2.99%
부동산	205.02	+0.20%	+2.12%	+6.9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매매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1% MSCI 신흥 지수도 1.4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825 계약) 여파로 3.60pt 하락한 268.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8.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애플 및 애플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4%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된 점도 부담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한편, 영국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0.9%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부담이다. 그렇지만, 핀란드 총리가 “1 주일 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언급하는 등 브렉시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한 점은 주목된다. 17 일 EU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OPEC 의 감산 기대감이 높아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에 따라 국제유가는 훨씬 낮아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OPEC 의 감산에 대해 경고를 하자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 전환하며 60 달러를 하회 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도 부담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으로 한국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애플 하락은 이미 제기되었던 이슈라는 점, 유럽 정치 이슈는 13 일(이탈리아 수정 예산안 제출일)과 17 일(EU 긴급 정상회담)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완화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점, 국제유가는 OPEC 의 감산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폭이 확대되기 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이탈리아 산업생산 양호

이탈리아 9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다만, 시장 예상치(mom -0.5%) 보다는 양호했다. 전년 대비로는 1.3% 증가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주말에 OPEC 과 비 OPEC 장관들이 모여 회담을 가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50 만 배럴 감산을 언급하는 등 OPEC 감산 기대감이 높아지자 한때 61 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을 감안하면 가격은 현저히 낮아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OPEC 감산에 대해 경고를 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다만, 여전히 OPEC 감산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벨기에 외교장관을 비롯해 프랑스 EU 장관 등 주요 인물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영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핀란드 총리는 “1 주일 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파운드화 약세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이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로 하락 중이다. 미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급락하자 채권선물이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9%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9.93	-0.43	-5.02	Dollar Index	97.584	+0.70	+1.36
브렌트유	70.12	-0.09	-4.17	EUR/USD	1.1222	-1.01	-1.62
금	1,203.50	-0.42	-2.34	USD/JPY	113.81	-0.02	+0.55
은	14.011	-0.91	-4.34	GBP/USD	1.2849	-0.95	-1.47
알루미늄	1,942.00	-0.61	-1.67	USD/CHF	1.0109	+0.53	+0.64
전기동	6,049.00	-0.12	-2.29	AUD/USD	0.7178	-0.66	-0.46
아연	2,496.50	-1.05	-0.93	USD/CAD	1.3244	+0.24	+1.02
옥수수	371.25	+0.41	-0.74	USD/BRL	3.7653	+0.95	+1.00
밀	519.75	+3.54	+2.46	USD/CNH	6.9662	+0.26	+0.77
대두	883.25	-0.39	-0.28	USD/KRW	1133.90	+0.50	+0.93
커피	114.00	-2.98	-5.82	USD/KRW NDF1M	1138.60	+0.76	+1.6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82	휴장		스페인	1.598	+0.20	+3.40
한국	2.210	-1.50	-6.20	포르투갈	1.944	+0.40	+6.40
일본	0.119	-0.40	-0.90	그리스	4.391	+2.80	+12.20
독일	0.398	-0.90	-2.80	이탈리아	3.435	+3.40	+11.20